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 하였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나는 울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슬피 울고 괴로워 하였다." 인간의 생사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이 말은 티베트의 큰 스승(린포체)들이 어린 재자들에게 들려주는 말이다.

불법에 비추어 인생을 깊이 들여다 본 불자라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음을 깊이 환희해야 한다.

인간을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가 감각적인 욕망과 집착, 진리의 가르침에 대한 무지이기 때문이다.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지 못하는 범부는 생각 생각 죄업의 씨앗을 뿌리면서 끝 없는 윤회를

“합의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염제인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불자들은 생일잔치를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태어난 날을 기뻐하는 일보다 죽을 날을 알 수 있도록 수염에 흰색이 든다는 스승들의 가르침 때문이라고 한다.

“태어난 인간은 늙지 않



현 장

“죽음과 내세를 준비하자”

을 수 없고, 늙은 인간은 죽지 않을 수 없고, 죽은 인간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경전은 말씀하신다.

그래서 불교수행의 근본은 생사윤회로 부터의 해탈, 다시 태어나지 않는 공부에 있는 것이다.

달려진 경성을 불화한 그르오신 부인의 석경스님을 찾아 보았던 적이 있다. 송광사 어른 스님들의 안부를 물은 스님께서는 송광사의 가풍으로 전승되어온 이야기로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 주셨다.

송광사 스님들은 나이 60이 되어 환갑을 맞이하면 스스로 세 가지를 실천했는데, 첫째 60이 지나면 몸에 좋은 보약을 먹지 않는다.

둘째, 평생 모아진 재산을 처분해서 본사에 필요한 불사를 한다.

셋째, 자신의 장례비용은 스스로 준비한다.

스스로 죽음과 내세를 준비하고 해탈을 위해 정진하는 일, 이것이 참회할 원인을 줄여가는 일이 아닐까?

(보성 대원사 주지)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와 http://www.buddhapia.com
구독·광고 문의 (02)737-8881
엘리마당 종교와 정치의 만남 21면

‘정보보존법’ 낚고 허술

25년간 그대로... 문화유산의 해 ‘무색’
관리인력·도난 방지시설 의무화 ‘절실’

‘정보보존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교계 안팎에서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문화유산의 해였던 올 한해 동안 배워 한걸음의 정보도난 사건이 일어난 것은 정보보존법이 1972년 제정된 이후 25년간 한번도 손질되지 않은채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총5장 15조로 구성된 정보보존법의 가장 시급한 개정사항으로 꼽히는 대목은 정보의 분실과 훼손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명기하는 조항의 신설이다.

조계종은 97년 한해동안 정보도난과 관련 7명의 전현직 주지에 대해 ‘승려법’을 적용, 징계조치와 문서전책의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이같은 징계는 잃어버린 도난정보의 중요도에 비해 가볍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정보보존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경중의 구분이 뚜렷한 징계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 관련학계와 종단 일각의 주장이다.



따뜻한 세일 경제한파로 어느때보다 나눔의 정(情)이 매마를 수위에 없는 세일이지만 16일 지리의정(회장 동원스님·도선사 주지)이 마련한 송년 노인잔치는 따뜻했다.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과 함께 나누려는 동체대비의 훈훈한 정이 가득 물어나는 가운데 김해구 지역노인 2백여명은 마음의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이날 노인잔치는 삼각산 도선사 봉시모임인 ‘보리수회’ 회원 50여명이 음식과 선물을 마련, 눈길을 끌었다. (사진=고영배 기자)

조계종 강원 4년학제로 통일

3년제 학제로 운영되던 조계종·강원이 내년부터 4년제로 통일된다. 전국교직자연학회(회장 수진·해인사 강주)는 16일 교직원 회의실에서 제1회 교직자연학회를 열고 범주·백양·봉도사 강원을 여타 강원과 같이 4년제 학제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는 4년제 강원을 마치지 않을 경우 구구계를 수계할 수 없는 계단법에 따른 조치다. 또 모든 강원에서 학적부를 만들어 학적변동의 참고자료로 삼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문스님(송광사 강주)과 탁연스님(봉년사 강주)의 비구·비구니강원 학사관리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기초발제에 이어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삼우화학회 호소문
종단협, 전국사암 계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산하 소비자보호위원회(위원장 효강스님)는 13일 유한컴퓨터 불중정 거래에 의한 삼우화학의 부도 폐해를 알리는 호소문 1천부를 제작하고 각 종단과 조계사 등 서울 시내 대형사찰에 부착했다. 또 대불전 지하를 통해 전국 대학에 배포했다.

대통령 당선자 불교공약 20면 '97 불교 사건과 인물 11면

제15대 대통령 김대중 당선

“TMF 돌파하고 종교갈등 해소”



제15대 대통령에 김대중 새 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대중후보가 총투표자의 40.3%의 지지를 얻어 38.7%의 한나라당 이회창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고 공식결과를 발표했다.

50년 헌정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이룬 김대중 당선자는 “국민 모두의 힘을 모아 경제위기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히며 “위기의 한국에 함께 한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 돼 거센 파도를 헤쳐나갈 것을 국민에게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3·20면)

“불교현실에 지속적 관심갖길”

새 대통령당선 교계반응 “문화예산 2%로”

불교계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안정과 화합속에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지역 계층 종교간 갈등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기를 기대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주스님은 “21세기를 여는 대통령으로서 경제난국과 더불어 가치관의 혼란을 막아주길 바란다”고 말하고 특히 문화예산을 2%로 늘려 국가발전의 기틀을 다져달라고 제사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연등회 의원들의 불교계 관심이 돋보였다”면서 “앞으로도 불교현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천국불교운동연합(상임의장 지선스님)은 19일 성명을 통해 “새롭게 들어설 정권은 종교간의 화합과 협력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성스님, 98년 '3월의 독립운동가'



보통저는 20일 내년 '3월의 독립운동가'로 용성스님(1864-1940)을 선정, 발표했다.

스님은 1879년 해인사 화월스님을 은사로 득도, 지리산 금강대 송광사 상임암사에서 수행했으며 1911년 4월 서울 종로구 북악동에 대각사를 창건 선학원을 세워 대중포교에 나섰다.

특히 스님은 1919년 3·1 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한사람으로 참여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 일경에 체포 1년 6개월의 옥고를 치렀다. 1921년 4월 출옥한 스님은 대각교를 정립하고 삼강역회를 조직(화엄경, 금강경, 기신론) 등 30여 경전을 번역하는 등 역경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三寶正財를 守護하는 三寶金庫 福田函!

최첨단기술로 제작되어 파손 및 도난을 방지하는 불교계 최초의 금고형 복전함! 미려한 외양과 견고한 내부를 자랑합니다.

- 1 신뢰성** 혁신적인 기술로 첨단 컴퓨터 회로로 구성된 초정밀 제품으로써 믿음직한 제품입니다.
- 2 편리성** 스위치 하나로써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한 번호를 쉽게 자유자재로 1단위부터 8단위까지 번호를 바꿀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합니다.
- 3 안전성** 틀린 번호를 3회이상 누르면 경보음이 울리며 컴팩트 기능이 마비되는 이중안전장치를 삼보정재를 지켜 드립니다.
- 4 견고성** 삼보금고의 원자재는 강도높은 강판으로 사용 하여 반영구적이며 외부로부터 파손 할 수가 없습니다.
- 5 디자인** 상·하 연화문양으로 조각·주조되어 외형을 장식되었으며 현대감각과 불교미학적 조화를 이루는 콤팩트한, 중후하고 세련미를 자아냅니다.

의상등록 제 25848 호

모델 A101	모델 A102	모델 A103	모델 A104	모델 A105	모델 A106
· 높이 550 · 가로 545 × 세로 360 · 중량 67 Kg · 가격 ₩880,000	· 높이 605 · 가로 545 × 세로 360 · 중량 71 Kg · 가격 ₩980,000	· 높이 605 · 가로 605 × 세로 395 · 중량 79 Kg · 가격 ₩1,050,000	· 높이 605 · 가로 760 × 세로 395 · 중량 83 Kg · 가격 ₩1,150,000	· 높이 690 · 가로 655 × 세로 425 · 중량 95 Kg · 가격 ₩1,250,000	· 높이 695 · 가로 910 × 세로 545 · 중량 110 Kg · 가격 ₩1,380,000

불교미술관 三寶金庫 삼보금고 ■ 상담전화 : 02)739-2991/733-4800 ■ FAX : 02)739-2992